

17대1 복합리조트 전쟁, 경제성·콘텐츠는 뒷전

9개 지자체서 34개 기업 사업자 신청
콘텐츠 고민 없이 무차별적 유치 경쟁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기대를 모은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의 후보지역 선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7월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복합리조트 사업 콘셉트 제안서(RFC)를 접수한 결과 인천, 경기, 부산, 경남, 경북, 강원, 충북, 전남 등 9개 지자체에서 무려 34개 기업(컨소시엄)이 신청을 했다. 문체부는 우선 3~4개로 압축한 후보지역을 발표하고, 이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서(RFP)를 11월 말까지 접수해 연말 최종적으로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한다.

●2개 선정에 34개 기업 지원, 17대1의 경쟁

복합리조트 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을 지역별로 보면 영종도가 있는 인천이 17개로 가장 많았다. 현재 LOC와 파라다이스그룹이 복합리조트 사업권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은 영종도미단시티, 인천공항국제업무지구, 영종하늘도시, 인천항 등에 국내 GKL을 비롯해 해외자본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나왔다.

부산은 북항 개발지를 후보지로 부산시와 롯데그룹이 나섰고, 전남은 여수 경도를 후보지로 내세웠다. 지난해 흥준포 지사가 복합리조트

건립계획을 발표한 경남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에 복합리조트를 건립하겠다고 신청했다. 경기는 고양시, 화성 송산신도시, 용인시 등 3개 지역에서 나섰고, 강원은 코오롱 그룹과 함께 춘천을 후보지로, 충북은 음성군을 후보지로 내세웠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수협중앙회가 최근 여의-한강 개발로 주목을 받는 노량진에 복합리조트를 짓겠다고 나섰다.

●지역개발과 배려 등 정치논리에 경제성 성공가능성 뒷전

지자체들이 복합리조트에 목을 매는 것은 각종 보도와 경제수치를 통해 알려진 싱가포르와 마카오의 화려한 성과 때문이다. 싱가포르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세운 후 관광수입이 2009년 170억에서 2013년 4조4000억원으로 27배 늘었다는 점은 지역경제를 이끌 수의 모델에 고심하는 지자체에 무척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번 유치 경쟁은 복합리조트 성공을 좌우할 관광수요 예측, 운영역량과 구성 콘텐츠, 경제성 보다 지역개발과 소외지역 배려 등의 정치논리에 더 쏠렸다. 해당 지역 단체장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까지 나서 유치를 위한 지지성명과 대관로비, 언론 플레이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경쟁이 뜨겁다 보니 어떤 기준으로 후보지역을 선정하든 탈락 지자체들의 반발과 이후 돌아칠 후폭풍이 꽤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



복합리조트의 대표적인 성공스토리로 꼽히며 지자체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안겨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의 위용. 9개 지자체에서 34개 기업이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한국형 복합리조트는 올 연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 나오고 있다.

●“복합리조트 콘텐츠에 대한 고민 필요”

이런 상황에 대해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서원석 교수는 “새 복합리조트는 제주와 인천 영종도에 추진 중인 국내 복합리조트와의 경쟁과 함께 외국 복합리조트와의 경쟁을 함께 해야 한다”며 “여기에 이번에도 중시가 꺾였던 중국시장의 리스크도 감안하는 등 고려할 사안이 많

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무엇을 갖추느냐는 시설적인 면 못지않게 복합리조트를 재울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해외와 차별화된 테마는 무엇이 있을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관광객이 찾아올지, 카지노 이외의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어떻게 운영해야 성공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가을 주말여행, 담양을 갈까? 안동을 갈까?

10월까지 담양세계대나무 박물관
안동선 9월 25일부터 ‘탈춤 축제’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계절이라는 가을을 다가오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주말 가족여행에 좋은 향토 문화축제가 열린다.

9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남 담양에서 열리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대나무를 주제로 한 페스티벌이다. 지난해 150만 명이 방문한 지역명소 담양 죽녹원을 비롯해 전남도립대 일원에서 열린다. 죽녹원에는 관람객의 동선에 맞춰 다양한 테라피로드를 만들었고, 한옥쉼터와 성인산, 죽녹원 내 8길 곳곳에 풍요 체험 등 다채로운 생태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워터파크 프리패스제’를 도입해 행사 기간 중 담양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북 안동에서는 9월25일부터 육사로 탈춤 공연에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열린다. 7개의 무대에서 300여 개의 공연과 100여 개의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국내탈춤공연 및 세계탈춤공연, 탈놀이단인 ‘광대승천’ 공연을 진행하고,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탈놀이 대동난

장퍼레이드, 탈춤 따라 배우기, 세계 탈전시회 등이 있다.

강원도 정선에서 열리는 아리랑제는 10월9일 개막해 4일간 진행된다. 한글날과 주말 및 정선 5일장으로 이어지는 기간에 열리는 정선아리랑제는 올해 40주년을 맞아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명석아리랑’을 선보인다. 세계무형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선아리랑 대합창’에는 군민 200여명이 참여한다.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진주 ‘남강유등축제’도 있다. 10월1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데, 올해는 높이 3m, 길이 50m의 대형 등에 조선 수성군과 왜군의 전투장면과 군사 훈련, 말을 탄 장수 등을 그려 진주성의 역사성을 웅장하게 묘사한 ‘진주대첩등’을 비롯한 다양한 테마들을 볼 수 있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6회 백제문화제’는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불꽃과 퍼포먼스, 음악, 영상, 특수조명 등이 어우러진 중부권 최대 규모의 불꽃쇼가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사비천도행렬 재현, 백제놀이·복식·황포돛배 체험, 전통 문화공연·전시 행사가 벌어진다.

김재범 전문기자

대한항공 ‘B747-8i’ 도입

미국 보잉사로부터 인수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사가 에어버스의 대형 항공기 A380의 대항마로 개발한 B747-8i(사진)를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 있는 에버렛 딜리버리 센터에서 B747-8i 차세대 항공기 1호기 인수 행사를 가졌다.

B747-8i는 과거 대형 여객기의 대명사로 불리던 B747-400 전보기의 명성을 잇기 위해 개발한 신형 항공기다. B747-400에 비해 길이가 길어 약 50여척을 추가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B747-8i에 퍼스트 클래스 6석, 프레스티지 클래스 48석(1층 26석, 2층 22석), 이

코노미 클래스 314석 등 총 368석을 배치했다.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중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지녀 최대 14시간, 1만 4815km까지 운항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B747-8i를 2017년까지 총 1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취항은 9월 2일 프랑크푸르트 노선부터 시작해 올해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홍콩 등에 투입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70돌 맞은 아모레퍼시픽 임직원에 선물세트 전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고희’를 맞아 푸짐한 생일잔치를 벌인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9월5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와 선물을 준비한다. 창립일인 5일 경기도 오산 뷰티사업장에서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내 해외 전현직 임원, 거러쳐 관계자 등

300~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해인만큼 규모 있는 곳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아모레퍼시픽의 역사를 기록한 아카이브 신록 개관식과 공로상을 전달하는 시상식도 열 계획이다.

창립 70주년의 하이라이트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 서 회장은 국내외 임직원 1만명에게 특별한 선물 세트를 전달한다.

연세호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구내염 예방과 치료법

구강 청결·균형잡힌 식단 필수
스트레스 해소는 증상 완화 효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이달 초와 비교하면 최근에는 잠을 이루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졌다. 그러나 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숙면에 취하기 어렵다. 체온이 떨어지고 숙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내의 면역 호르몬 분비가 저하돼 다양한 면역질환에 걸릴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안에 염증증상이 생기는 구내염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내염이라고 하면 단순히 피곤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잦은 입 속 염증 증상과 함께 증상이 잘 낫지 않는다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 구내염일 가능성이 높다.

구내염은 입 안의 점막인 혀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증상특징으로는 별다른 자극 없이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한다.

구내염은 발병원인에 따라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헤르페스성 구내염, 편평태선, 칸디다증 등으로 구분한다.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구내염 증상 중 가장 흔한 증상으로 입 안에 궤양이 생긴다. 체내 면역체계의 이상이나 세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뜨거운 음식, 빵과 혀의 상처 등이 원인으로 피로와 스트레스, 알레르기 등에 의해 증세가 악화되기도 한다.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입 주변 얼굴에 발생하며 수포가 생기고 통증이 심하다. 보통 성인이 되기 이전에 잘 나타나며 전염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편평태선은 세포의 과다 성장으로 인해 빨, 잇몸, 혀에 두꺼운 하얀 조각이 생긴다. 주로 흡연자에게서 나타난다. 혹은 잘 맞지 않는 틀니를 사용하거나거나 빨을 씹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칸디다증은 곰팡이 감염으로 발병한다. 틀니를 사용하거나 소모성 질환 또는 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잘 발생하는데, 특히 어린 아이에게서 흔히 발병한다.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항생제 복용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구내염은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치료를 통해서도 증상 호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방치료를 통해서도 구내염 증상 치료가 가능하다.

이지스한의원 최찬희 원장은 “구내염의 한방치료는 침과 뜸, 그리고 한약치료를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며 “구강 위생상태를 좋게 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스트레스를 완화하게 해소하면 구내염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세호 기자 sol@donga.com

황제옥환

강하게, 오래오래..

링은 늘어나야한다!!! 왜? 아프니까!! 빠지니까!!

중간에 시든다, 강직도가 약하다, 사정이 빠르다
작아서 아프고, 커서빠지고, 살이썩히고, 피부알러지 등

황제옥환은?

-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탄력있게 늘어나주기 때문에 착용시 혈관이 튼튼 불거짐 정도도 평창되지만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 더 굵고 더 길게 착용방법에 따라 숨겨진 남근이 최대 길이 연장의 효과로 인해 남근의 작고 외소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 착용후 링은 몸속에 살짝 파묻혀서 여성들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매우 만족해 합니다.

꼭대옥이환?

원석의 나이가 16억7500만년된 천연옥 원석외산 음이온 방사를 92.7로 물에 지니기만해도 좋은 기를 받을수있는데 하물며 남성에 직접작용하면 놀라운 남자의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에 의존했던 많은분들이 황제옥환을 착용하면서 약을 끊으셨다는 격려전화를 많이 해주십니다. ※ 본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황제옥환은 진정한 “**왕자호**”들이 극찬한 제품입니다.

남성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굵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물며 팽창되었을 때에는 더욱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링이 손에 끼는 반지처럼 고정형이라면 링속에서 남성만 수축운동을 하게 되므로 아픈 등증 등 불편함이 유발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황제옥환은 2026년 7월 1일까지 특허 (제30-0604759) 받은 기술로 남성이 시든 상태에서 손에 반지같이 딱 맞게 착용하면 남성이 시들었다 끊어졌다할 때 링의 늘어나는 기능이 남성과 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팽창감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효과가 확실하고 팽창시 아프거나 헐거워서 빠지거나 하지 않는 황제옥환만의 특허받은 기능입니다.

상담전화 1577-1780 / 010-7278-2490

헬스뱅크 서울시 강남구 선내동 199-4

NAVER 황제옥환

D&T 용의혀

(DRAGON'S TONGUE)

성(sex)은 우주만물의 근원이며, 특히 우리 인간에게 신이 사랑으로 내린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60억 인구 가운데서 유일하게 맺어진 짝의 60%가 일상동안 오르가즘의 극치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한다.

본 발명은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보조 용품으로 외소강 조루증 테크닉 결려로 인한 불만을(변강직 카사노바 제비족)을 능가하는기교로 성생활 불만을 단방에 해소시켜 남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여성은 가족과 가정에 활기차고 참신한 기를 불어넣어 가족같은 새 삶을 누리게 할 성 생활 도우미입니다.

1. 여성은 출산이란 위대한 산고로 제2의 생명인 질과경이 평창되어 부부 공히 성감이 예전만 못하여 욕구불만이 쌓여서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려 방황하는 젊은이를 본 도우미로,
2. 갱년기에 호르몬이 감소하며 성욕감퇴로 온갖 병과 스트레스가 쌓여 불만이 극에 달해 이혼과 파탄의 문턱에 선 중년층들,
3.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내자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늦게서 후회고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해 겉도는 노년을 사살을 찾기를.

※ 본 발명품은 당신의 눈으로 그 위력과 효용을 할 수 있는 투명한 제품으로 당신의 지혜롭고 대담 용기 앞한 선택만 빠져 있습니다.

본 제품의 은밀한 내역은 광고지면에 올리지 못하므로 관심을 갖고 주소 성명 주시면 자세한 설명서를 무료로 우송함.

- 본사 : 010-3922-2722 • T&F : 070-8186-2722 진원개발
- 구입계좌 기업은행 : 002-076954-01-012 진성문
- 구입가 : 48,000원 홍보기간 동안 20일 사용 후 30일내 반쯤 100% 환불함 (택배비 3,000원 공제)

특이 및 출시 예정 현황

- (1) 성강증진팩 : 20-2011-0006011
- (2) 성보조구지자인등록 30-063942
- (3) 성기확대팩 : 10-156523
- (4) 정력강화팩 등록 : 10-15616524
- (5) 정력 증진형 성강증진 : 20-2014-0036614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大할인 행사

“저집음 회로 설계로 집음이 적어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립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大할인 행사

2015년 신제품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사용 청력에 맞추어 10단계 음향조절기능

광고제작문의: 011-204-4401

★ 이런 분은 필요되지 않습니다 ▶ 체형 후 구입하신분 ▶ 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 분 ▶ 제품보호용 필름을 제거하신 분

무료체험 오는 길 : 2호선 서울대 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입금계좌: 농협351-0651-2246-73 제이에스넷 ▶문의: 1644-2464 ▶본인인증 2013 서울관악구 0604호 제이에스넷 E-mail kakaka4@naver.com

이럴 때 사용하세요

- ▶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 ▶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다.
- ▶ 상담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다.
- ▶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다.
-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1회 충전시 24시간 연속사용!
배터리 잔량 확인기능 내장
하물림 방지기능 내장

ESONIC
www.sunsea.kr